

[총장 인터뷰] 한국의 MIT로... 이건우 DGIST 제5대 총장의 커다란 포부

지난해 12월, DGIST 제5대 총장으로 이 건우 박사(이하 이 총장)가 취임했다. 디지스트신문 DNA는 앞으로 DGIST를 이끌 이 총장을 취임 후 한 학기 지난 시점에 만나 지금까지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원내 인원 1/3 이상 외국인 구성, DG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등의 계획과 함께 세계를 향한 개혁을 준비하는 이 총장, 그의 이야기를 전한다.

◇ 한국의 MIT, 이 총장의 포부

DGIST의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물음에, 이 총장은 “한국의 MIT”라 답하며 커다란 포부를 밝혔다. 이공계 분야에서 그 어떤 학교보다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약속이라고 이 총장은 설명했다. MIT 유학 시절, 모든 학생이 한 번쯤 공부하러 가보고 싶어 하는 학교, 모든 기업체가 한 번쯤 과제를 맡기고 싶은 학교로 인식하는 것을 보고 이런 학교를 한국에도 이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랜 시간 교직 생활을 한 서울대학교에서는 공학 전문 대학인 MIT와는 다르게 종합대학교라는 배경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DGIST에서는 이공학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더불어 이 총장은 DGIST의 발전을 위한 열쇠로 국제화를 꼽았다. 학생과 교직원 인원의 1/3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며, 임기 내 달성을 원하지만 1/6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 또한 전했다.

◇ R&D 예산 삭감, 그러나 중요한 것은 DGIST의 차별화된 연구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정책으로 한동안 DGIST를 비롯한 전국의 이공계 학생 사회 내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DGIST를 이끌기 시작한 신임 총장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크게 걱정하지는 말라는 당부를 전했다.

DGIST는 다른 국내 과학기술 단체에 비해 큰 충격을 받은 편은 아니며,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한 채 차별화해 나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 총장은 “때를 쓴다고 예산을 받을 수 있지는 않다”라며, 각 연구실이 차별화된 자신만의 주력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면 R&D 예산은 큰 문제가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이 총장은 대형 과제 발굴을 위해 DGIST 학과별 교수 1명과 외부 영입 위원장이 참여하는 임시 편성 위원회를 조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DGIST 부설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이 총장은 DGIST에 KAIST의 한국과학영재학교와 같은 부설 영재학교를 개교하고, 초·중생 대상의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DGIST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에 대응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과학기술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이 총장의 교수 임용 기준, 강의 능력보다 연구 능력



△ 이건우 DGIST 제5대 총장 <사진 = 총장실 제공>

이 총장은 교수의 연구 능력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교수 임용 기준에 관한 질문에 강의 능력을 갖춘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 중심 기관인 만큼 교수의 연구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수의 강의 방식도 학생의 학업성취에 중요하지만, 자신의 대학 시절 경험에 비쳤을 때 이는 학생 스스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신 체제 시절 전국 휴교령으로 대학에 나갈 수 없어 혼자 공부했던 경험이 시간이 흘러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교수의 강의를 이해되지 않는다면 힘들겠지만 혼자 공부하는 힘을 기르는 의미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하는 측면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평가 과정을 거친 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고려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젊은이들은 급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엄격한 관리자에 해당하는 ESTJ 성격 유형을 가졌다 밝히며 DGIST 구성원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줄 것을 당부했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이현규 기자 leehyunkyu@dgist.ac.kr

한편, 이 총장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

DGIST 영재학교 설치 관련 대경과기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타당성 검토 진행 중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입법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DGIST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가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되었고, 한때 DGIST 원장을 지낸 적 있는 이인선 의원(국민의 힘, 대구 수성구 을)에 의해 7월 초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DGIST 신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 영재학교 설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실질적 설치에 대한 여러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이고 이의 첫 단추

로 지난 9월 24일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설치가 확정된다면 부설 영재학교를 부산에 설치한 KAIST의 경우와 달리, DGIST 캠퍼스 근처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미 DGIST는 달성군과 과학영재학교 유치 및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더불어 입법 후 한 달여가 지난 11월, 해당 관계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대구에 추가적인 과학영재학교 설립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DGIST 신사업추진단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미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대구시에 새로운 영재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국회 과학위 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건우 총장은 지난 7월 디지스트신문 DNA와의 인터뷰에서 DG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The New "수습" 기자
박재윤('23)

편집장
권대현('23)

지면편집
김신지('22) 김예은('24) 이현규('24)

dgistdna.com
dgistdna@dgist.ac.kr
@dgist_press

‘1학년 1학기 복학생도 신입생 수강신청 가능’, ‘예비수강신청 일자 변경’... 2025 수강신청 개편

교내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매년 개설 교과목 수강인원이 증원되는 현실 속 예비수강신청제도의 비효율성, 1학년 1학기 복학생이 신입생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그 지점이다. <디지스트신문 DNA>는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고, 복학생, 융복합대학 총학생회장, 그리고 학사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교내 수강신청이 가진 문제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023년 봄, 23학번이었던 새내기 김씨는 휴학을 결정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앓았던 지병을 안고 대학 생활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년간의 휴학 이후, 수강신청을 하려고 하자 김씨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교내 규정상 1학년 1학기차 학생이지만, 신입생과 학번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신입생 수강신청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재학생 수강신청에서 김씨가 수강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수업이 정원이 차 있었고, 아직 저학년이라는 이유로 증원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예비수강신청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예비수강신청이 복학생 신청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는 엄연한 복학생에 대한 제재이다. 1학년 1학기 복학생은 예비수강신청도 하지 못해 수강인원 수요조사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신입생 수강신청도 하지 못한다.”라고 교내 수강신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교내 예비수강신청은 학기 종료 직후 이루어지는데, 강의평가 후 단순히

	~2024년	2025년 1학기	2025년 2학기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종료 직후 예비수강신청 1학년 1학기 복학생은 신입생 수강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학년 1학기 복학생도 신입생 수강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학 신청 마지막 3일 예비수강신청

©디지스트신문 DNA

성적 확인을 위해 공통필수 과목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1학년 공통필수과목인 ‘프로그래밍’ 과목은 전체 수강신청자 210명 중 169명이 예비수강신청했으나, 공통필수가 아닌 ‘일반화학2’는 수강신청자 102명 중 오직 59명만이 예비수강신청했다. 일부 교양과목의 경우 예비수강신청자 인원이 단 2명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에 휴학할 학생도 성적 확인을 위해 예비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성적 확정 이전에 예비수강신청이 이루어져 그 학기에 수강한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하는 과목은 예비수강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아직 선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휴학생은 포함되지만, 복학생은 배제되며, 선수과목이 필요한 교과목의 인원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는 예비수강신청인원은 실제 수강신청자 수와 차이가 있다.

◇ 총학생회와 학사팀의 입장

총학생회는 교내 수강신청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4월 수강신청 종합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매 문제 ▲과목 정원 부족 ▲예비수강신청의 실효성 문제 등을 확인하였다. 이후 여름학기에 학사팀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들을 전달했으며, 예비수강신청 시기에 대한 조정과 미신청할 때 불이익을 강화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총학생회는 카드 등록 기간 1-2주 전에 예비수강신청을 실시하고, 예비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카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학사팀은 수강카드가 학생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며, 불가피하게 예비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해외에 있는 학생들, 장기 휴학생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방안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수요 조사를 위해 예비수강신청 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총학생회와 의견을 같이하며, 수강신청 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예비수강신청 개편사항 <표= 이상아 기자>를 미루기로 했다고 답했다. 복학생이 예비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복학신청 2주 중 마지막 3일 정도의 기간을 예비수강신청 기간으로 잡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적 확인 이후 예비수강신청을 하기 때문에, 선수과목이 필요한 교과목도 예비수강신청이 가능해진다. 학사팀은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이 짧아 예비수강신청 결과로 큰 변화가 일어나긴 어렵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신청 인원을 반영하여, 해당 결과를 통해 교수님들과 일차적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 학사팀의 2025학년도 수강신청 개편

신입생 수강신청 대상은 당장 다음 학기부터 학기 차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1학년 1학기 복학생도 신입생들과 함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학사팀은 “교내 수강신청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무학과 단일학부 트랙 제도 상 모든 문제를 고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수강신청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학사팀 이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라며 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아 기자 sa0531@dgist.ac.kr
노경민 기자 nomin@dgist.ac.kr

인턴십 필수 이수 학점,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축소 운영

지난 8월 23일 학사팀은 인턴십 필수 이수 학점에 대해 2024년 2학기부터 23학번 이후 학번을 대상으로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턴십 학점이란 자교 및 해외 대학원, 산업체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DGIST 교육과정상 졸업을 위해서는 총 2학점의 인턴십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변경을 통해 23학번부터 인턴십 학점을 1학점만 이수하여도 졸업이 가능하며, 추가로 3학점은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의 형평성이나 역할별 문제로 인해 22학번 이상은 기존대로 2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생 사회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턴십 학점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20학번 교육과정 변경이나 인턴십 학년 제한 등 기존의 제도 개정이 전 학년에 소급 적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변경이 23학번 이후로 제한되는 것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노경민 기자 nomin@dgist.ac.kr

선거시행세칙 개정... 2025학년도부터 휴학생에게도 선거권 부여



△ E7 해동창의마루 앞에 열린 투표소 <사진 = 이동규 기자>

세칙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함이라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중선관위 내부의 구체적인 토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라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전했다.

◇ 휴학생에게도 총학생회장단 선거권 부여
기존에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던 휴학생에게도 부분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된다. 투표일 전날까지 중선관위에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휴학생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휴학생이 지금껏 총학생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으나, 이를 보완할 세칙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 밝혔다. 기존의 휴학생 선거권 제한 조항은 무기한 휴학 등으로 원내 학생 활동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시스템상의 방어 장치와 함께 적극적 권리 행사 의지를 가진 휴학생의 학생 사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동연회장단 선거권 제한 요건, 동연회와 중선관위의 합의에서 중선관위 고유 권한으로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회)와 중선관위의 합의가 요건이었던 동연회장단 선거권 제한이 중선관위의 고유 권한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동연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의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동연회와 중선관위가 판단해 합의하면 중앙동아리만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연회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권한을 중선관위 내부로 귀속했다고 권 위원장은 설명했다. 만약 동연회가 해당 조항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중선관위에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이상아 기자 sa0531@dgist.ac.kr

[오피니언] 교수의 일방적 성적 평가 기준 변경, '교수 재량'은 어디까지

2024년 1학기 말, 교양학부 윤 모 교수(이하 윤 교수)가 담당한 '권리변동의 일반', '법과 사회' 강의에서 일방적인 성적 평가 기준 변경으로 논란이 일었다. 시험이 치러진 이후에 수업계획서에 없는 나례 기준을 두 차례 적용하고, 채점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이전에 치러진 시험의 총점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총학생회는 학사팀에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성적 평가는 교수 재량이므로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DGIST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요령>(2024.06.18. 제29차 개정안) 제14조(수업계획서의 작성과 활용)에 따르면 "강의 담당 교수는 매 학기 수업계획서를 [별지 제2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강 신청 시작 2주 전까지 공고하여 학생들이 교과목의 내용 등을 사전에 이해하고 수업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행 임무 및 평가 체계'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학사팀에

따르면 수업계획서의 작성은 권장 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법과 사회' 강의는 수업계획서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권리변동의 일반' 수업계획서는 성적 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2. 강의계획서					
과목 개요 (Course Description)	본 강좌의 성취 목표는 법의 원리 정립에 법의 실무적용을 위하여 법의 원리 정립 및 법의 원리를 법의 실무적용에 연계하여 학습하는 데 있다.				
과목 목표 (Course Objectives)	법률의 원리를 이해, 자기 실용적 법학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과목 및 평가방법 (Equivalent Tests & References)	교과목명	교과목명	교과목명	교과목명	교과목명
수행 임무 및 평가 (Assignment & Grading)	평가방법	평가방법	평가방법	평가방법	평가방법
세부 일정 (Class Schedule)	교과목명, 양, 학기, 교수명, 개시 일자, 종료 일자				
학점 (Academic Integrity)	교과목명, 양, 학기, 교수명, 개시 일자, 종료 일자				

△ 2024학년도 1학기 '권리변동의 일반' 수업계획서 <사진 = DGIST 개설 과목 조회 캡처>

게다가 학기 중 수업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사례와 같이 교수가 일방적으로 성적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 당시 학사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 교수와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결국 해당 과목은 성적 평가 기준의

정정 없이 운영되었다.

학사팀에서 그간 수업계획 변경을 규제하지 않은 것은 교수의 재량권을 중시하는 현 규정이 강의 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적용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 규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가 발생한 이상,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과목들까지 규제하자는 뜻이 아니다. 교수의 일방적인 수업계획 변경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사팀에서 이를 검토하고 중재할 근거가 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논란이 되었던 두 과목은 담당 교원인 윤 교수가 '일신상의 이유'로 2학기 예정되었던 강의를 취소하며 일단락 되었으나,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타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덕성여대는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계획서를 변경할 시 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해 교

무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목원대는 강의 계획 변경 시 이를 강의계획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수의 재량권 확보를 이유로 이러한 규정을 세우기 어렵다면, 수업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수업계획 변경 시 최종 평가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수강생들에게 변경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세우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성적 평가는 전적으로 교수의 권한이다. 그러나 학생들 역시 수강 신청 전 수업계획서를 참조해 수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교수 재량이라는 이유로 수업계획 및 성적 평가 기준을 학기 중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수업계획서의 작성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다. 교수의 재량권과 학생들의 권리 사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때다.

박재영 기자 jaeyoung21@dgist.ac.kr

총학생회 공동포럼 입법추진단 발대식, 김민성 총학생회장 참여

지난 8월 21일,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정책협약식과 입법추진단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정을호(민주) ▲백승아(민주) ▲문정복(민주) ▲인요한(국힘) ▲천하람(개혁) ▲조승래(민주) ▲이훈기(민주) ▲김영호(민주) ▲고민정(민주)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김민성 DGIST 학부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도 참석하여 모두 발언에 참여하였다.

박현민 공동포럼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이 시작한 입법 추진 활동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과 청년이 포함된 입법 추진 활동은 이미 어느 정도 존재했지만, 제도권 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청년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해 이끌어가는 활동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행사에 참여한 김 회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권 정치와 협업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총학생회 공동포럼, 대학생 토론회 개최



△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 <사진 = 권대현 기자>

지난 8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 정책 및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본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박강산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인원이 함께했으며, 김민성 DGIST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과 함형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9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

연세대 ▲DGIST ▲GIST ▲KAIST ▲UNIST)의 전현직 총학생회 집행부 인원이 발언하였다.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학생 자치의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였다. 학생 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를 통한 변화의 힘이 강하다는 인식을 평학생에게 퍼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학생 자치의 효율성을 늘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권 정치 지도자들은 학생 자치 기구와의 대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 여러분이 가감 없이 공과 모두를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총학생회 공동포럼, 이준석, 황정아 의원과 면담... 김민성 총학생회장은 과기부 청문회 증인 출석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김민성 DGIST 학부 총학생회장 <사진 = 국회방송 제공>

지난 8월 1일, 한국대학총학생회 공동포럼(이하 공동포럼)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울, 이하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이하 황 의원)과 면담하였다. 공동포럼은 이번 면담을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안된 대학생 정책요구안의 실질적 반영과 R&D 예산 배정 및 분배 기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함을 밝혔다.

면담에서 황 의원은 R&D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자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이었다. 더불어 현장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구상 중이며, 산하 대학생위원회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또한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적 의제의 설정을 손익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산업적 활용도가 크지 않은 분야에

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며, 우주항공 분야 등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또한 과방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지만, 많은 의원이 다른 현안에도 열정적이라고 이야기하며 학생들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과의 면담에 참여한 김민성 DGIST 학부 총학생회장은 7일 후 열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른 과학기술원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오피니언] 노벨문학상을 안기게 해준 번역의 힘, 기저에는 번역인 처우 개선이 있어야

지난 10월 10일 한국시간 20시경,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노벨문학상은 영국의 부커상, 프랑스의 공쿠르상과 더불어 세계의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문학계에서 부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 스웨덴 아카데미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상을 수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 한강의 문학작품을 세계로 전한 번역자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사에 남을 쾌거로 평가되지만, 그 배경에는 작가의 탁월한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번역가들의 헌신적 노력이 큰 역할을 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노벨 문학상의 초석이 된 한강의 2016년 부커상 수상 또한 <채식주의자>가 ▲이탈리아어 ▲독일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내 문학작품의 우수성은 이미 검증된 바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적 쾌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번역으로 국내 문학작품을 세계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노벨상으로 인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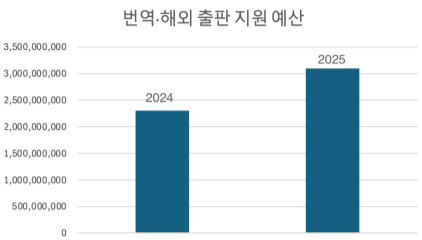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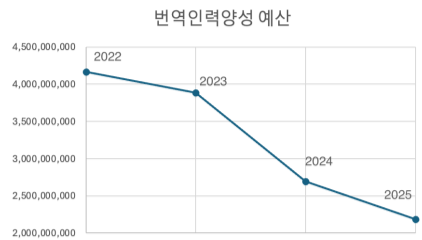
처음 한강의 작품이 단독 번역된 것은 2011년으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을 기반으로 번역가 김훈아가 일본어로 '채식주의자'를 번역했다. 같은 연도에 번역가 황하이번이 베트남어로 해당 작품을 번

역하였으며, 이후 윤선미 번역가가 스웨덴어로 번역하며 서구권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2015년 영문으로 해당 작품을 번역했다. 2009년부터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여, 2010년부터 5년간 런던대학 SOAS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공부한 그녀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고 첫 20페이지를 번역해 영국의 출판사 '그란타 프르토벨로'에 보냈다. 이후 한강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오랜 고민 끝에 번역을 완료했다. 영문 번역본 출간 이후 '채식주의자'가 1년 만에 부커상 후보에 오른 것을 보면, 한국 문학작품이 가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해준 번역가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 번역인들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좋은 번역을 위해서는 이러한 번역가의 작업과 더불어, 도서 출판, 편집, 디자인, 교열, 유통을 담당하는 출판사와 번역가를 양성하고 번역 산업을 후원하는 번역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2009년 영문 번역의 권위자 윤혜준 교수가 지적했듯이, '문학 번역 작업이 창작 작업에 비해 현저히 차별받는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듯하다.

우선 번역가의 상황을 살펴보자.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 어느 젊은 번역가의 생존 습관'을 쓴 김고명 번역가는 꼬박 10년 일해서야 원고 장당



△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에 따른 번역 관련 예산 증감 추이 <표= 이상아 기자>

4,000원대 임금으로 진입했다고 한다. 이는 한 달에 꼬박 20일을 꾸준히 번역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고 할 때, 실수령액 331만 원을 받는 금액이다. 이조차 오랜 경력과 꾸준한 일감이 있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계산이고, 실제 번역가가 받는 임금 수준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번역원의 경우는 어떨까? 한강 문학작품 번역 85건 중 76건을 지원한 한국문학번역원의 연봉은 4천7백9십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인 6천1백7만 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31곳 중 최하위 수준이다. 신입 초봉은 실수령액 2천3백만 원 선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508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저임금에 근 3년간 입사자 대비 퇴사자 비율은 평균 73%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번역 인력 양성에 할당된 예산은 ▲2022년 41억 6천6백만 원 ▲2023년 38억 8천6백만 원 ▲2024년 26억 9천1백만 원으로

매년 감소해왔으며, 2025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 21억 8천8백만 원 수준이다. 물론 이번 한강의 수상의 영향으로, 2025년 번역-해외 출판 지원 예산이 23억에서 31억으로 34.5%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정책일 뿐이다.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번역 작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번 한강의 수상을 바라보며, 보다 많은 한국의 문학작품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국 문학만이 가진 고유성과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한국 문학이 번역되어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는 번역인들에게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생태계에 기반한다. 그 생태계가 지속될 때, 한국 문학은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상아 기자 sa0531@dgist.ac.kr

국적을 떠나 하나 된 마음으로, 월드프렌즈코리아(WFK) IT 봉사단을 만나다



△ 건너대학교 ICT 단과대학 학생들과 IT 봉사단원 <사진 = 박지현('23) 제공>

지난 7월 3주간, 국제교류팀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베트남 건너대학교 ICT 단과대학에 월드프렌즈코리아(이하 WFK) IT 봉사단을 파견했다. 봉사단은 하계방학 동안 IT 교육, 프로젝트 진행과 문화교류 활동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했다. 디지스트신문 DNA는 총 12인의 봉사단원 중 박지현 학생('23)을 만났다.

◇ WFK IT 봉사단의 구성과 소개를 부탁한다.

IT 봉사단은 WFK에서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아 해외 협력국 주민들의 ICT 역량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이다. 봉사단은 ▲멀티미디어팀 ▲아두이노팀 ▲IT project팀 ▲문화교육팀 총 4

팀으로 구성되었다.

멀티미디어팀과 아두이노팀, 문화교육팀은 매주 수업을 구상하여 20-4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IT project팀은 피부 질환 진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4인 1조 프로젝트팀에 투입되어 활동했다.

본인은 문화교육팀 소속이었는데, 다른 세 팀과 달리 문화교육팀은 금요일 아침 밖에 수업이 없어 나머지 팀들에 배정되어 각 팀을 도왔다. 본인은 IT project팀의 활동을 도왔다. 속한 프로젝트팀의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해 주고, dataset을 찾는 기본적인 활동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을 했다.

◇ 2019년 이후 봉사단 활동이 잠시 정지됐었다고 들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활동에 어려움은 없었는가?

WFK에서는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도 꾸준히 IT 봉사활동을 진행했었다고 들었지만, DGIST에서 파견한 것은 2019년도가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다.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갔다 보니 주변에 갈 수 있는 곳, 교통편, 학교 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생활하면서 적응이 되었지만, 특히 opening ceremony나 closing ceremony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전 사례가 없어 힘들었다.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서 진행하는지,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지 등을 봉사단원끼리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서 고민이 많았다. 그래도 덕분에 같이 간 팀원끼리 머리를 맞대며 해결해 나가면서 결속력을 키울 수 있었다.

◇ 봉사단 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

수업을 마친 후에는 베트남 현지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놀곤 했다. 그중 첫째 주에 갔던 카페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옥상에서 같이 기타도 치고 서로 노래도 불러주고, 다 같이 춤을 추기도 했다. 그때 '국적은 다르지만 이렇게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은 정말 인생에 다신 없을 경험일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리고

베트남 학생들이 K-pop과 K-drama를 아주 좋아해 주어 대화할 주제도 정말 많았다. 사실 수업하는 시간보다 커피를 돌아다니며 함께 추억을 쌓은 시간이 더 많았다. 봉사를 통한 보람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는 베트남 친구들의 일상에 녹아 그 문화를 함께 체험해 보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더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다.

◇ 해외 봉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한다면?

질병에 특히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ICT 봉사단도 베트남에 가서 물갈이나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나서 고생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봉사하러 가기 전 자신에게 잘 맞는 상비약을 잘 챙기고 항상 음식이나 물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겁이 나서 해외 봉사를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본인도 정말 영어를 못하고, 외국인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베트남에 가서 짧은 문장으로 대화하며 소통하니 자신감이 생겼다. 번역기도 정말 잘 되어있으니 영어를 못해서 해외 봉사를 못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상아 기자 sa0531@dgist.ac.kr

[DGIST 꿀팁실록] 비슬빌리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새내기부터 추억부터 졸업 학기의 여운까지, 4년 넘게 함께 하는 DGIST 학생 생활관, 비슬빌리지. 대학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금자리이지만 등잔 밑이 어두운 법! 비슬빌리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Q. 김달구씨는 기숙사 퇴거 날 부모님께서 짐을 못 옮겨 주신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짐을 택배로 보낼 처지가 되었는데, 이 많은 짐을 택배 대리점까지 가져가야 할까?

A. 당연히 그렇지 않다! 기숙사에서 CJ 대한통운 택배를 보낼 수 있다. 먼저 편의점 옆 '택배 접수처' 배너 게시대를 찾자. 게시대에 붙어있는 설명을 꼼꼼히 읽어 숙지한 후, 아래쪽에 붙어있는 비닐백에서 택배 접수증을 보낼 택배 개수만큼 꺼낸다. 접수증에 배송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착불에 표시한 후, 접수증을 택배 상단에 부착하여 보안센터 앞 화이트보드 근처에 내려놓으면 끝이다. 비슬빌리지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비슬빌리지 X동 X호'이다.

Q. 번기가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현재 보안센터에서 뚫어뻥(번기, 세면대용 2가지)을 대여할 수 있다. 보안센터 직원에게 문의한 후 대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안센터에서 대여 가능한 물품은 ▲짐 카드 ▲휠체어 ▲에프킬라 ▲의약품 ▲빔프로젝터 ▲공구이다. 청소기는 보안센터가 아닌 각 동 2층 휴게실에서 이용 가능하다.

Q. 김달구씨는 얼떨결에 조별 과제 조장이 되었다. 발표 연습을 위한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기숙사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A. 비슬빌리지에서 제공하는 미팅룸을 이용하자. 미팅룸은 생활관 1층 201동 방향에 자리 잡고 있으며, 조 모임에 필요한 화이트보드와 스크린을 구비하고 있다. 혹은 기숙사 식당 옆 통로에 위치해 있는 사랑방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사랑방은 DGIST 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이하 생자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예약 가능하다.

Q. 김달구씨는 기숙사에서 게임을 즐겨한다. 그러나 기숙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면 게임에서 네트워크 지연이 심하다. 1ms의 차이로 판가를 나는 승패.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A. 네트워크 통신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KT 회선(타 통신사 불가)을 호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KT 공식 센터나 인터넷 가입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설치 기사가 직접 방문해서 설치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퇴거 시 인터넷 회선 가입만 해지고 설치된 실물 모뎀을 그대로 두고 가면 호실 인터넷이 아예 끊기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퇴실 전 미리 미리 통신사 고객센터에 모뎀 수령 요청을 하고 보안센터(785-8282)에 전화해서 기본 기숙사 망으로 원상 복구하자.

Q.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인 김달구씨는 데이터 비용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다. 기숙사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201동은 와이파이기가 기본 제공되고 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와이파이 이름(h201-XXXX)과 동일하다. 20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공유기를 구매하여 직접 설치해야 한다.

Q. 군 제대 후 복학한 김달구씨는 세탁실 이용을 위해 지폐를 한가득 준비해 왔다. 그러나 현재 세탁실은 모바일 페이를 도입하면서 더 이상 지폐를 받지 않는다. 새로 바뀐 세탁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A. 기숙사 2층에 있는 세탁실은 빨래와 건조가 모두 가능한 공간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메타클립' 앱을 다운받은 후 포인트를 충전하면 준비는 끝이다. 앱 내 세탁하기 버튼을 선택한 후 QR 스캔 버튼을 눌러 사용할 세탁기기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세탁기기의 기본요금은 1,200원이며 추가 코스에 따라서 요금이 붙는다. 다양한 세탁 모드가 있으니 세탁물에 알맞게 고르면 된다. 세탁실은 세탁기 7대 건조기 3대 구성으로, 건조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세탁 후 건조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메타클립 앱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세탁기기를 확인 가능하니, 앱을 이용해 빈 건조기를 째짜게 사용하자. 세제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탁실 한편에 세제 자판기가 있어 단돈 500원에 액체 세제 1포(60ml)를 구매할 수 있다.

Q. 교류실 수납장은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A. 교류실의 수납장은 공용과 개인용으로 나뉜다. 공용 수납장은 누구나 소량의 짐을 보관할 수 있다. 개인용 수납장은 신청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장이다. 생활관에 입실하는 주에 생자회의 신청공지를 따라서 구글 폼을 작성하면 된다.

Q. 체력 단련실에는 어떤 기구가 있을까?

A. 체력 단련실에는 샤워실과 유산소 및 무산소 운동 기구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 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체력 단련실은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하니,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했다는 핑계는 대지 말자.

솔더프레스	시티드체스트프레스
암컬	버터플라이
레그익스텐션	시티드레그프레스
랫플다운	스미스
케이블크로스 2개	로밍머신
일랩티컬	벤치(인클라인, 시트, 플랫)
케틀벨(8KG)	T바로우
자전거 2개	런닝머신 6개
바벨(20KG) 3개	이지바 3개
원판 다수	덤벨(최대 15KG)

△ 체력 단련실 기구 목록 <표 = 노경민 기자>

Q. 기숙사에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A. 기숙사에는 24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독서실이 있다. 독서실은 202동 통로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쾌적한 독서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독서실 에티켓을 잘 지켜야.

Q. 기숙사에서 나가지 않고 간단하게 한 끼 때울 방법이 있을까?

A. 기숙사 1층 '더 큰 도시락'을 이용하자. 포장과 매장 식사(1층 로비)가 모두 가능하다.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운영일의 마지막 주문은 저녁 8시 30분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마감 시간이 조정되니 8시 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Q. 김달구씨는 학기 중 키보드를 타다 넘어져 오른손을 크게 다쳤다. 급하게 휴학계를 제출하게 된 상황에서 기숙사 퇴실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A. 퇴실 일주일 전(권고) 비슬빌리지 내 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환불 및 퇴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원과 퇴실 점검 시간을 조율한다. 퇴실 전 호실을 깔끔히 청소한 후, 퇴실 당일 직원과 함께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Q. 과제에 치여 살던 김달구씨는 기한 내에 45,000원의 수도광열비를 내지 못하고, 독촉 문자를 받게 되었다. 깜짝 놀라 급하게 송금하던 중 '0' 하나를 더 눌러 450,000원을 송금해 버렸다. 김달구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수도광열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생활관 규정에 의해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고지된 수도광열비 액수에서 1원이라도 다르게 송금하면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기 때문에 오송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마지막 달의 수도광열비는 반환되는 보증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보증금이 덜 들어왔다고 해서 놀라지 말자.

Q. 기숙사 관련 문의 전화번호가 3가지로 나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

A. 입/퇴실 등 행정 및 생활 문의는 생활지원센터 053-730-7882(평일 9시~18시)로 연락하고, 시설물 고장 문의는 서비스센터 053-785-8282(24시간)로 연락하면 된다. 각종 물품 대여 및 보안 업무는 보안센터 053-785-7112나 053-720-7884로 연락하면 된다. 목적에 따라 잘 선택해서 전화하자.

Q. 눈이 침침한 김달구씨는 평소에 작은 노트북 화면으로 작업하는 것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기숙사에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을까?

A. 20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책상에 전선 구멍이 있어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이 쉽다. 책상 틀(선반 아래) 안에 들어가는 모니터 크기는 24인치가 한계이다.

Q. 호실 도어락은 학생증으로만 열릴까?

A.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비밀번호 설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비밀번호는 10자리의 숫자로만 설정이 가능하다. 평

일 17시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면 당일 18시 이후 도어락에 비밀번호가 설정되고, 그 이후 신청 시 근무일 기준 다음날 18시에 설정된다.

Q. 룸메이트가 방학을 맞아 퇴실하게 되었는데, 룸메이트가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가 퇴실일 이후로 먹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A. 도어락 비밀번호는 호실이 아닌 학번에 귀속된다. 따라서 룸메이트가 호실을 이동하면 비밀번호도 룸메이트와 같이 이전되기 때문에 원래 호실의 도어락에는 룸메이트의 비밀번호가 삭제된다. 이 말인즉슨, 한 호실에는 자신과 룸메이트 두 명의 비밀번호가 동시에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퇴실하지 않고 호실 이동 시에는 호실 이동 날짜에 맞추어 이동한 호실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자신이 설정한 비밀번호로 자동 설정된다. 단, 퇴실 후 입실(ex. 방학, 휴학)의 경우에는 학번 정보가 말소되기 때문에 입실 후 재신청해야 한다.

Q. 기숙사 퇴거 신청을 하며 호실 내부를 보니 냉장고를 포함해 집으로 가져갈 짐이 턱없이 많았다.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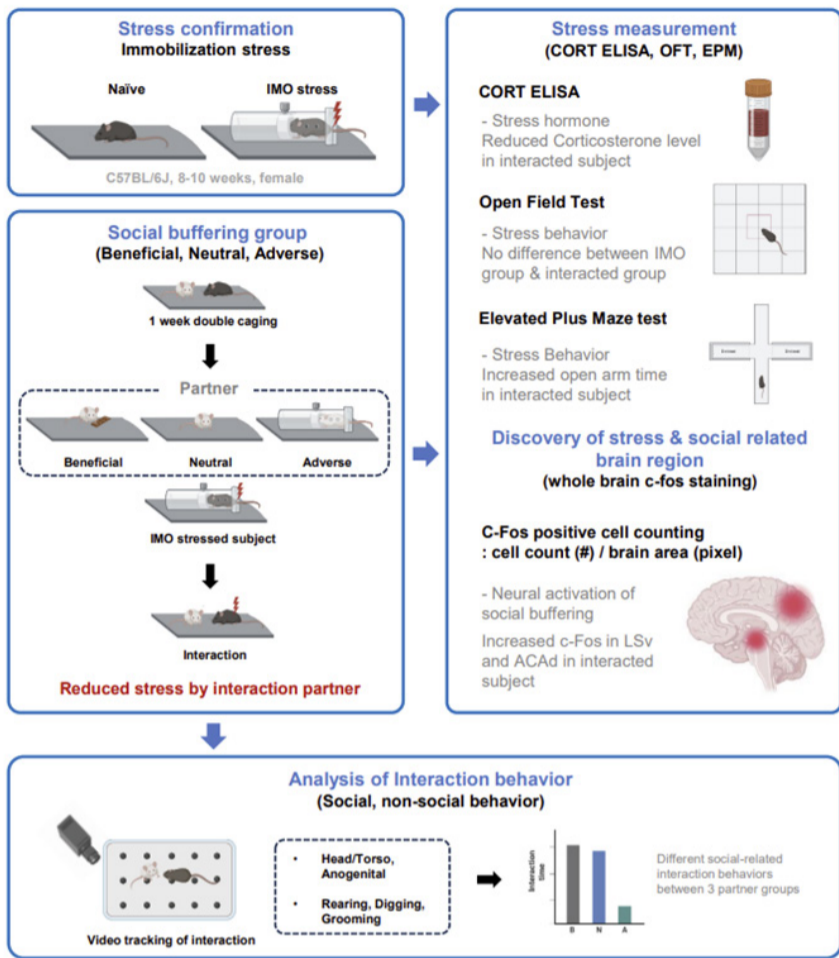
A. 생자회에서 운영하는 창고를 이용하자. 신청 공고는 기말고사 전 메일로 안내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라면 안내를 늦게 보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창고 칸의 종류는 일반과 냉장고 칸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칸의 크기는 55cm×56cm×52cm(1칸) 혹은 110cm×56cm×52cm(2칸)이며 냉장고 칸의 크기는 55cm×56cm×104cm(작은 칸), 86cm×58cm×108cm(큰 칸)이다. 배정이 되면 생자회에서 공지한 개방 시간에 맞추어 짐을 보관하고 되찾을 수 있다. 개방 시간이 여러 번이니 걱정하지 말자. 창고는 기숙사 식당 옆 통로를 따라 외부로 나간 뒤, 건물 벽을 따라서 이동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비슬빌리지 측에서도 유료 짐보관 서비스(우체국 6호 박스 기준 1만 원, 인당 최대 3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생자회 짐보관 서비스를 놓친 사람은 차선택으로 이용해 보자.

Q. 기숙사에 폐건전지, 폐의류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A. 203동 입구 옆 출구 쪽으로 나가면 중문 사이에 전체 동의 우편함이 존재한다. 201동과 202동 우편함의 사이 아래쪽에 폐건전지함이 위치해 있다. 폐의류의 경우 204동 뒤편 분리수거장의 종이수거함이 있는 곳 안쪽 끝에 수거함이 있다.

타 학교 대비 우수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슬빌리지이지만 정작 이것들을 100% 활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위에서 나열된 꿀팁들을 통해 비슬빌리지를 조금 더 알차게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2023 UGRP 우수연구] 상대 쥐의 경험에 따른 social buffering 차이



△ 상대 쥐의 경험에 따른 social buffering의 차이 연구 요약 <그래픽 = UGRP팀 제공>

2023 UGRP 학술 기사 주제는 ‘상대 쥐의 경험에 따른 social buffering 차이’이다. 최한경 교수의 지도하에 ▲남동우 ▲서희 ▲이지민 ▲이지예 학생 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해 2023 UGRP 우수과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UGRP 연구팀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적 완충(social buffering)이다. 사회적 완충은 사회적 동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같은 종의 동물이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가 더 빨리 완화됨을 의미한다.

UGRP팀은 사회적 완충 효과를 받는 쥐(이하 수혜 쥐)와 그 곁에 있는 쥐(이하 상대 쥐)가 있을 때 상대 쥐의 상태에 따라 사회적 완충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연구팀은 상대 쥐가 수혜 쥐를 만나기 전에 겪은 경험에 따라 ▲긍정 그룹 ▲부정 그룹 ▲중립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으며, 수혜 쥐의 스트레스 완화 정도를 측정했다. 추가로, 수혜 쥐의 뇌 활성 부위를 분석하여 사회적 완충에 관여하는 뇌 부위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팀은 수혜 쥐의 스트레스 반응을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 측정과 행동 실험으로 분석했다. 또한, 수혜 쥐와 상대 쥐 사이의 행동적 상호작용을 영상 분석을 통해 정량화했다. 마지막으로, 수혜 쥐의 뇌를 적출하여 동결 절편으로 만든 뒤 C-Fos 면역 염색을 시행하여 활성 뇌 부위를 확인했다.

디지스트신문 DNA는 연구팀 학생 지원을 만났다.

◇ 팀 소개 및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서희: 우리 팀의 이름은 ‘뇌과학이지예’이다. 연구 주제인 뇌과학을 강조하고,

대구 출신이자 팀의 핵심 인원이 이지예 학생의 이름을 빌렸다. 뇌과학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팀이다. FGLP를 기점으로 팀이 결성되었고 22년 9월부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여 23년에 UGRP 연구를 진행했다.

◇ 연구 주제를 선정한 과정과 연구 설계 과정이 궁금하다

이지예: 팀원 모두의 공통 관심사인 뇌과학과 마우스 모델에 관련된 주제를 4개월에 걸쳐 찾았다. 그동안 많은 논문을 찾아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면서 주제를 좁히는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찾은 주제가 사회적 완충이었다. 사회적 완충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상이고, UGRP를 통해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주제라고 고려해서 선정했다.

남동우: Nature neuroscience 등의 관련 저널에서 사회적 완충에 관한 논문을 많이 찾아보았다. 찾은 논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 측정 ▲행동 모델 실험 ▲전기생리학적 실험으로 쥐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였다. 우리는 그중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와 행동 모델 실험을 중심으로 실험을 설계했다.

◇ 동물실험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분배했나?

이지예: 쥐의 가격은 주차와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리 팀은 가장 기본 쥐인 B6 6주 차를 사용했는데, 그 가격이 마리당 20,8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지민: 쥐의 관리에도 예산이 들어간다. 실험동물 센터에서 쥐를 관리하는 케이지 하나에 하루 관리비 800원이 들어간다. 원래는 한 케이지에 쥐를 최대 4~5마리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주제 특

성상 쥐를 한 케이지에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만 넣어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들었다. 특정 구역을 출입할 때 입고 들어가는 옷에 대한 비용도 달마다 인당 2만 원씩 지불해야 했다.

◇ 연구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었나?

서희: 초반 실험 설계가 제일 힘들었다. 원래는 보고서에 올린 실험들 이외에 추가 실험을 계획했으나, 시간상 여유로 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들의 실험은 쥐들의 스트레스가 관건이었기에 실험 세팅부터 까다로웠다. 쥐가 있는 케이지를 들고 실험실로 이동하고, 실험이 끝난 쥐를 채혈하러 부검실로 옮기는 모든 과정이 다 스트레스 원인이 되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험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케이지를 전날 밤에 실험실로 옮기고, 일주일 동안 싱글 케이지를 하는 등 많은 시도를 해보며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의 기준선을 찾는 데에만 여름학기가 지나갔다. 행동 영상 분석도 힘들었다.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아서 동영상은 여러 번 돌려 보느라 다들 피폐해졌던 경험이 있다.

◇ 동물 실험 허가를 얻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이지민: 먼저 실험동물센터의 출입 권한을 얻으려면 실험동물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신청은 실험동물센터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출입 권한과는 무관하게, 동물 실험 허가를 얻으려면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IACUC)의 승인 번호를 얻을 수 있으며, 승인 번호가 있어야 실험동물 구입이 가능하다. IACUC에서 계획서를 보고 동물에게 너무 많은 고통이 가해지거나 필요 이상의 동물을 희생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판단한 경우, 실험이 반려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반려당해서 계획서를 다시 써서 제출한 적이 있다. 동물 실험 허가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이 작업을 UGRP 초반에 끝내기를 추천한다.

◇ UGRP로 동물실험을 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이지예: 동물 실험을 계획하는 팀이라면 1월부터 회의를 시작해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동물 실험은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동물 실험의 경우 쥐의 생체 주기가 있어서 아침 7시에 사육장의 불을 켜고 저녁 7시에 꺼야 한다. 쥐의 생체 주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실험동물 센터에서는 저녁 7시 이후에 실험할 수 없다. 학기 중 평일에는 동물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꼭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길 바란다.

김신지 기자 sjneuroneurony@dgist.ac.kr

오상규 기자 sg549@dgist.ac.kr

이현규 기자 leehyunkyu@dgist.ac.kr

[2024 노벨 물리학상] 인공지능의 이론적 기반 발명, 그 배경의 학제적 연구

지난 10월 8일,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존 홉필드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이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를 발표한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 노벨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 학습의 이론적 기반 발견과 발명”을 공로로 두 사람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은 인공지능 분야에 수여되어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노벨 물리학상 수여 이유에 덧붙여, 위원회는 두 수상자의 연구 배경에 통계물리학 이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처럼 통계물리학이 다른 과학 분야에 접목된 학제적 연구가 노벨상 물리학상을 받은 또 다른 사례로는 2021년 수상이 있다. 그 해에는 통계물리의 하위 분야인 복잡계 물리를 연구한 ▲슈쿠로 마나베 ▲클라우스 하셀만 ▲조르조 파리시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특히 마나베와 하셀만은 복잡계 물리를 기후학에 접목하여 “지구 기후의 물리적 모델링을 위해 변동성을 정량화하고, 지구 온난화를 안정적으로 예측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김신지 기자 sjneuroneurony@dgist.ac.kr

[2024 노벨 화학상] 인공지능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지난 10월 9일(현지 시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단백질 설계 모델을 만든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AI)인 ‘알파폴드(AlphaFold2)’ 개발에 기여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 존 점퍼 디렉터가 선정됐다.

구글 딥마인드 팀이 만든 알파폴드(AlphaFold2)는 전처리 과정에서 입력 시퀀스와 시퀀스의 정보, 입력(템플릿) 정보와 일치하는 MSA(Multiple Sequence Alignment, 다중서열정렬: 단백질, DNA, RNA의 서열을 이용하여 3개 이상의 생물 종 서열을 정렬하는 방법) 정보를 MSA representation 및 pair representation(단백질 서열 내에 아미노산의 잔여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코딩하는 방식)에 변환(임베딩)한다. 이후 Evoformer라고 불리는 두 개의 트랜스포머로 이루어진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MSA 및 pair representation을 업데이트한다. 이 결과물을 3차원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단백질 구조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한다.

올해의 노벨상 수상에서 주목할 점은 노벨화학상과 노벨물리학상 모두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가 주목받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사례는 처음이기에 많은 과학자와 과학도가 주목하고 있다.

김예은 기자 yeeun05@dgist.ac.kr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해피엔딩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반짝반짝이는 너 그런 니가 좋아
나와 있어주겠니 부탁해”

△ 올리버와 클레어 <사진 = CJ ENM 제공>
움이 섞인 마음으로 둘은 제주도로 향하는 차에 오른다.

21세기 후반 서울 메트로폴리탄. 은퇴한 도우미 로봇 ‘헬퍼봇’들의 아파트에 사는 올리버는 자신을 데리러 오기로 약속한 옛 주인 제임스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의 클레어가 충전기를 빌리러 오면서 그의 일상에 균열이 이다. 클레어가 성가시면서도 신경 쓰였던 올리버는 매일 같은 시각 문을 두드리면 충전기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렇게 클레어가 올리버의 새로운 일상이 된다.

◇ 생각보다 꽤 괜찮아, 함께 있다는 게

올리버는 클레어가 1분이라도 늦는 걸 못마땅해할 정도로 꼼꼼하고 규칙적으로 사는 로봇이다. 매일 아침 화분에게 “안녕, 화분! 오늘도 좋은 아침.”이라 인사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화분을 햇볕 아래로 옮기고, 재즈 잡지를 받아보고, 책을 읽는 일상은 수십 년째 변함이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일상은 자유분방하고 장난기 많은 클레어에 의해 깨어진다. 어느새 올리버는 클레어가 오는 오후 1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은 나만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내어 그 안에 상대를 집어넣는 일이다. 완벽함은 깨지고, 평화로웠던 삶은 변화에 휩쓸린다. 그리고 이 과정은 대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작되어 본인의 의지로 완성된다. 클레어가 오기를 기다리게 된 순간부터 올리버는 이미 클레어를 사랑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 좀 우습지
혼자인 게 익숙한 너와 내가
이렇게 함께인 게
생각보다 꽤 괜찮아
생각만큼 나쁘진 않아
함께, 함께 있다는 게

- 「생각보다, 생각만큼」

어느 날 클레어는 올리버의 집을 둘러보던 중 그가 제임스가 있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병을 팔아 돈을 모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클레어는 자기 친구에게 차를 빌릴 테니 당장 함께 제주도로 가자고 제안한다. 제주도에만 남아있다는 반딧불이를 보는 것이 클레어의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올리버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지만, 결국 클레어와 함께 제주도로 떠나기로 결정한다. 설렘과 두려

◇ 이게 사랑인 건가 봐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마침내 제임스의 집을 찾아내지만, 올리버는 제임스가 이미 1년 전에 죽었으며 남은 가족들은 올리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낙담한 채 차로 돌아온다. 그러나 클레어는 제임스가 죽기 전 올리버에게 남겼다는 레코드판을 보고 제임스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던 거라며 놀라워한다. 클레어의 위로로 제임스와의 이별을 받아들인 올리버는 함께 반딧불이 사는 숲에 도착한다. 늦은 밤 하나둘 피어오르는 반딧불이를 보며 감탄하던 둘은 유리병에 반딧불이 한 마리를 잡아 간직한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 둘은 아름다웠던 풍경을 추억으로 남기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불쑥불쑥 상대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미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둘은 동시에 뛰쳐나오다가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 서로에게 마음을 고백한다. 그렇게 연인이 된 둘은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각을 느끼며 기뻐한다.

◇ 우린 왜 사랑했을까

그러나 그들은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미 은퇴한 로봇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올리버보다 내구성이 약한 모델인 클레어는 하루하루 고장을 겪고, 올리버는 매번 클레어를 고쳐주지만 그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함을 안다. 어느 날 클레어의 고장 난 발목을 고치려는 올리버에게 클레어가 말한다. “올리버, 이것만 고치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알잖아.”

대부분의 로맨스 작품은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끝난다. 지지부진한 고난의 과정을 겪어왔으니 결말 정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속 편한 서술로 끝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삶은 계속된다. 사랑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로봇이나 사람이나, 자연적인 수명에 의해서든 그보다 더 이르게든 모든 사랑은 엔딩을 맞이해야 한다.

너와 나 잡은 손 자꾸만 남아가고
시간과 함께 모두 저물어간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 해, 그때까지만
혹시라도 너 원할 땐 모두 멈출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져 가는 서로를 보며 아파하기에 지친 클레어는 결국 올리버에게 이별을 고하고, 더 이상 괴롭지 않도록 둘이 함께한 추억이 담긴 메모리를 지우기로 한다. 마지막이 될 만남에서 둘은 애정을 담아 서로가 알려주었던 것들은 남겨도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건 지워야만 해”라고 당부한다.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둘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기억을 돌이킨다. 그 배경으로 깔리는 것이 <우린 왜 사랑했을까 Rep>라는 제목의 넘버다.

우린 왜 사랑했을까
우린 왜 그냥 스쳐 가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을까
우린 왜 끝이 분명한 그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을까

이 작품의 구조는 수미상관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프롤로그 격으로 불리는 <우린 왜 사랑했을까>는 그들이 기억을 지울 때 리프라이즈로 다시 언급된다. 그러나 둘은 사랑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사랑했던 기억은 아름답고 소중한’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린 왜 사랑했을까”라는 질문을 후회가 아닌 기억의 맥락에서 돌이켜본다. 우린 왜 사랑했을까. 우리는 왜 이런 결말을 알면서도 서로 사랑하기를 택했을까.

◇ 어쩌면 해피엔딩

다시 평범한 어느 날,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올리버에게 옆집의 클레어가 충전기를 빌리러 온다. 올리버는 클레어를 집으로 들여보내며 화분에게 “씻! 말하면 안 돼.”라고 속삭인다. 올리버는 기억을 지우지 않았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전보다 더 삐걱거리는 클레어를 보며 남몰래 슬픔을 삭혀야 함을 알면서도 올리버는 기억을 간직하기로 한 것이다. 충전기를 빌리며 “괜찮을까요?”라고 묻는 클레어에게 올리버는 답한다. “어쩌면요.”

대본에 ‘어색하게 연기하는 투로’ 말하

라는 지문이 있어 기억을 지우지 않은 것이 명확한 올리버와 달리, 클레어는 지문에 정해진 지시가 없어 기억을 지웠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본 작품의 제작자 박천후와 윌 애런슨은 “클레어는 올리버보다 발전된 모델이라서, 만약 연기를 하더라도 올리버보다 덜 부자연스러울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클레어의 열린 결말은 관객을 위한 상상의 문이기도 하다. 자신이 클레어라면 어떻게 했을지, 각자의 생각에 따라 극의 결말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결말이든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준다. 둘 중 누구도 사랑했던 것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사랑이 주는 아린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끝이 뻗은 길을 함께 걸기로 한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해피엔딩’일지도 모른다.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포스터 <사진 = CJ ENM 제공>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6년 초연 이래 다섯 번의 시즌을 거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최근에는 영어판으로 각색되어 브로드웨이에 진출, 올해 11월 개막했다. 지난 5월 DGIST 연극동아리 ‘점아비’에서 공연했던 작품이기에 관람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공연을 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혹은 이 기사를 읽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나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인지, 나는 과연 사랑이 주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누군가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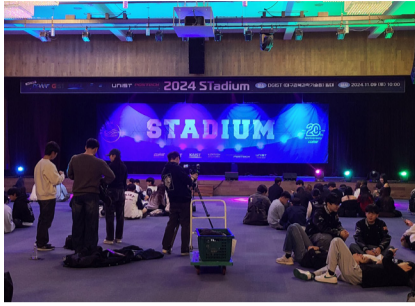
박재영 기자 jaeyoung21@dgist.ac.kr



“사랑이란 봄날의 꽃처럼
아주 잠시 피었다가 급세 흩어지고 마는 것”

△ 「사랑이란」 <사진 = CJ ENM 제공>

제6회 STadium 결산: 5년 만의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우승기



△ 개폐회식과 문화공연이 진행된 컨벤션홀 <사진 = 노경민 기자>

지난 11월 9일 DGIST에서 제6회 STadium이 진행되었다. STadium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체육 교류전으로서 2017년 첫 진행 이후 학생들의 건전한 친목 도모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하였다. 이번 대회는 6개 학교(▲DGIST ▲GIST ▲KAIST ▲KENTECH ▲POSTECH ▲UNIST)가 참여해 스포츠 친선경기를 진행하였으며, UNIST가 최종우승을 차지하였다.

DGIST는 야구와 농구 종목에서 GIST와 POSTECH을 만나 각각 8:10과 8:17로 패배해 2차전 진출이 좌절되었으며, 배드민턴 남자복식과 여자복식에서도 1차전을 패배해 일찍이 대회를 마무리했다. 혼성복식에서는 GIST를 제압해 2차전에 진출했으나, UNIST를 넘지 못하며 고배를 마셨다. 축구도 1차전에서 UNIST를 2:0으로 제압했으나, 2차전에서 KAIST를 만나 승부차기 끝에 석패하였다.

다른 종목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DGIST는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종목을 우승하며 5년 만에 단일 종목 우승이라는 성과를 빛냈다. 강동원 학생('23)이 이끄는 DGIST의 E-스포츠 팀이 UNIST와 POSTECH을 차례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극적인 우승 이야기를 전한다.

1차전에서 DGIST는 UNIST를 만났다. 초반 DGIST가 3,000골드 뒤지며 수세에 몰렸으나, 탑 볼리베어의 좋은 판단으로 얻어낸 연속 3킬과 정글 오공의 한타(집단 교전) 활약을 통해 역전에 성공하였고, 이내 골드 차를 7,000까지 벌리며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UNIST 또한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으로 공세를 잘 막아내며 경기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40분 가까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유지된 가운데 결국 DGIST의 마지막 공격에서 UNIST가 무너지며, DGIST는 결승으로 향했다.

준결승에서 POSTECH이 KENTECH을 이기면서 결승은 DGIST와 POSTECH이 맞붙게 되었다. 결승전에서는 예선에서 상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챔피언 위주의 밴픽(선택과 금지)이 이루어졌다. 1세트 초반 DGIST가 라인전을 주도했으나, POSTECH의 반격이 이어지며 공방이 오갔다. 위태로운 상황이 유지되던 중 DGIST가 지속적으로 좋은 경기 운영을 펼치며 POSTECH보다 5,000골드 이상 앞서게 되었고 성장 차이가 뚜렷해져 갔다. 몇 번의 공격 상황에서 POSTECH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DGIST와의 성장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경기의 분위기가 DGIST로 기울어 와중에 DGIST 탑 레넥톤의 솔밭을 슈퍼토스(상대 팀 원을 아군이 차지하기 좋게 밀쳐내며 돕는 행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상대 팀 정글 스카너가 집중 공격을 당하며 POSTECH의 진형이 무너졌고, 이 틈을 포착한 서포터 니코의 궁극기로 DGIST가 공격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며 1세

트 승리를 가져왔다. 2세트는 초반부터 DGIST가 6킬을 기록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2세트 경기 시작 후 10분이 경과한 시점 방송 송출 오류로 인해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으나 DGIST 정글 스카너의 압도적인 경기 운영과 원딜 아펠리오스의 좋은 마무리로 손쉽게 승기를 쥐며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다음은 DGIST에 5년 만의 단일 종목 우승을 안겨준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팀과의 대화이다.

Q. 가장 어려웠던 경기는?

강동원('23): 사실 결승전보다 UNIST와의 첫 경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초반부 경기 분위기를 UNIST에게 내줬을 때 '정말 이리다 한 판박에 못하고 짐 싸서 나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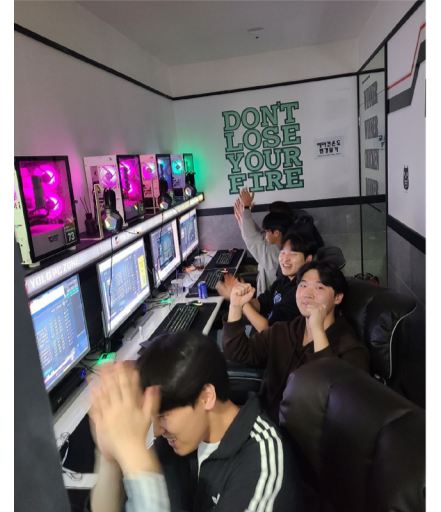
Q. 우승 소감 한마디씩 가능한지?

최지운('24, '롤체만합니다', 탑 라이너):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팀 연습 열심히 했다. 그에 맞는 좋은 결실 맺은 것 같아 만족한다.

강동원('23, '추성복04', 정글러): 팀원 간 조율에 있어 리더로서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지만 우승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과정들이 더욱 뜻깊어진 것 같다.

최종국('20, '후파루파', 미드 라이너): 학번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이 되었지만 동생들이 잘 따라와 줘서 고맙다. 무엇보다 우승해서 기쁘다.

박준석('20, '어준스기햄이야', 원딜러): 두 달 전부터 연습 열심히 했는데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은 것 같다. 팀원분들의



△ 승리의 순간. 결승전에서 세트스코어 2:0으로 승리하며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 종목에서 우승한 팀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 노경민 기자>

조언이 경기 승리에 도움이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

정영민('20, '어멍하우파', 서포터): 우승이라는 결실을 잘 맺어서 기분이 좋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잘 참고 풀어나가 준 팀원들에게 고맙다.

STadium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 기술 특성화 대학 간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 노경민 기자 nomin@dgist.ac.kr
- 박건우 기자 felixpark0505@dgist.ac.kr
- 서희 기자 tjgnl81@dgist.ac.kr
- 오상규 기자 sg549@dgist.ac.kr
- 이상아 기자 sa0531@dgist.ac.kr

[창립 20주년 기념] 디지스트신문 DNA 선정 학생 사회 9대 사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2014년 첫 학부생을 받은 이래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은 학문가로서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 과학도'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청춘으로서 우리 원 공동체 문화의 아름다운 성숙을 선도해 나가는 도덕적인 지식인이 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밤을 지새워 연구하며 학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는 더 풍성하고 즐거우며 아름답고 도덕적인 학생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2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 원 학생 사회의 파란만장한 10년을 목격한 언론인이자 증인으로서, 디지스트신문 DNA가 학생 사회의 9대 사건을 선정해 전합니다.

① 제1회 달빛제 개최 (2014)

DGIST의 축제, 달빛제가 1기 학부생들에 의해 첫 시작을 알렸다.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밴드 공연, 연극, 댄스, 음식점, 주점, 게임 등을 선보였다. 이는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아 2024년 현재까지 DGIST 최대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② 학부 총학생회 첫 출범 (2015)

학부생 입학 1년 후, DGIST에도 융복합대학 총학생회가 출범했다. 김봉상, 이도영 학생이 각각 초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으로 취임하며 우리 원 학생 사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초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74.0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진행되었다. DGIST 학생회칙 제3조에 따라, 모든 학부생은 융복합대학 총학생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③ 학보사 '디지스트신문 DNA' 출범 (2015)

대학생 토론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학보사가 DGIST에도 탄생했다. 구성원의 알 권리를 향상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로, 한승규 초대 편집장과 함께 디지스트신문 DNA가 출범했다. DNA는 매년 90여 편의 기사를 발행하며 원내 의제를 이끌었다.

④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정 및 시행 (2016)

융복합대학 총학생회 집행부는 2015년부터 준비한 학생회칙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학생회칙은 회원(학사과정 재학 학생)이 지닌 권리와 의무 및 총학생회와 학교 당국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항을 담았으며, 우리 학생 사회의 초석을 다졌다.

⑤ 최순실 게이트 시국선언문 발표 (2016)

DGIST 학생들은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사회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었다. 총학생회는 학생회칙 제24조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시국 선언 찬반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97.67%의 찬성률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의결 절차에 따라 우리 공동체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⑥ 제1회 STadium 개최 (2017)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합 체육 교류전 STadium이 시작되며 교류의 장을 열었다. 2017년 11월 DGIST에서 제1회 행사를 개최하며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다.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GIST ▲DGIST ▲UNIST ▲POSTECH ▲KAIST)이 참여한 행사는 이제 KENTECH까지 범위를 넓혔다.

⑦ 첫 학사학위 수여 (2018)

융복합대학 기초학부 졸업생 96명(공학사 28명, 이학사 68명)이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이들은 DGIST 첫 학부 졸업생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디디며,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시 만나자는 뜻을 모았다.

⑧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 (2020)

전 세계에 닥친 COVID19는 DGIST에도 찾아왔다. 잇따라 생기는 확진자에 DGIST도 전면 온라인 강의를 시행했다. 우리는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축한 우리 원의 열정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의 큰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⑨ 대학평의위원회 첫 출범 (2023)

고등교육법 제19조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에 따라 DGIST에도 대학평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교원(5명), 연구원(2명), 일반직원(2명), 학생(2명), 외부인사(2명)로 이루어진 평의원이 선출되었으며,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김민식 초대 의장(교수, 뉴바이올로지학과), 김대환 초대 부의장(책임연구원, 에너지융합연구부)을 중심으로 대학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 이상아 기자 sa0531@dgist.ac.kr